민·관·공·산·학 힘 모은다… 경북도, 지역혁신 사업 시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 본격 출범
3개 실증사업, 136억 사업비 확보
협력 통한 지역 혁신·소멸 대응

경북도가 지난 20일 청도상상마루에서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경북도가 지난 20일 청도상상마루에서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7개 시도 사회연대경제 지역지원조직과 컨소시엄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 7개 시도는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 이재혁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1부에서는 김종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장이 '지역문제해결,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7개 시도의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지역문제 해결 실증 프로젝트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은 광역단위 민·관·공·산·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 자원 발굴과 지역 의제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별로 국비 8억원과 시·도비 6억원 등 총 14억원이 지원된다.

청도 소재 경북시민재단은 경북도개발공사, TS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과소셜비즈, 한동대 등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시민재단은 전국 7개 사업의 총괄 용역기관으로도 선정돼 성과관리, 컨설팅, 홍보 등을 수행하며 올해 8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행사를 끝마친후후 참석자들은 청도읍의 ㈜시그널케어를 방문했다. 시그널케어는 동·식물성 부산물과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양어용·반려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자원순환 전문기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도내 댐 상류지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 원료로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올해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을 비롯한 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경남 "신규 원전 건설, 5조 경제효과"

13여년 만에 원전 건설 부지 확정
SMR 기술 경쟁력 선제 확보 발판

13년여 만에 신규 원전 건설 부지가 확정되면서 국내 최대 원전 기자재 집적지인 경남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의 건설 후보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내 원전 기업들의 기자재 제작 참여 등을 통해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부지 선정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형원전은 영덕, SMR은 기장을 각각 1순위로 결정했다. 신규 원전 부지가 정해진 것은 2012년 9월 이후 약 13년 9개월 만이다.

경남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 180여 개사가 밀집해 있다. 원전 주기기, 단조품, 특수용접 등 핵심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신규 원전 3기 건설에 따른 주기기 제작과 기자재 공급에서 직접적 수주가 예상된다.

건설 이후에도 운영 기간 기자재 교체와 유지 보수 수요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장기적인 산업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대형원전에서 SMR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일감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SMR 공급망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SMR 혁신 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원스톱 생산·검증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SMR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은 일감 공백을 메워 지역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버팀목인 동시에 SMR 기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원전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제15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참석자들이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울란우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NEAR 회의서 도시 경쟁력 홍보

국제회의 유치전 나서

포항시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협력무대에서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미래산업도시 비전을 알리며 글로벌 MICE 도시 도약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울란우데에서 열린 제15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조성 현황과 MICE 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차기 고위급 실무위원회와 총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이번 회의에는 9개국 91개 회원정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시는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을 대표로 파견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알렸다.

포항시는 회의 발표를 통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AI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 비전을 소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사천시, 해양 공공기관 추가 유치 박차

해양·우주항공 거점도시 기반 강화

사천시가 해양 분야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쌓은 유치 성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해양공공기관 유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방침이다.

남해안에 자리한 사천시는 해양도시이자 우주항공산업 거점도시로, 그동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2014년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를 유치했고, 2022년에는 사천해양경찰서 개서를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을 유치했다.

해양생태보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해양 전담 관리 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사천시 실안동에 문을 열었다. 사천시와 국립공원공단이 2023년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 225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었다.

해당 기관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조사와 연구, 해양생물 서식지 복원, 교육·체험 정책 개발 등을 맡으며 390t급 연구선을 갖추고 전국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을 관리한다.

현재 사천에는 ▲사천해양경찰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출장소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사천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들어서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본격 운영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강화

영양군이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을 시작하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본격화한다. 라오스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농번기 농가에 투입되면서 지역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지난 18일 라오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차 입국자 20명이 농업근로자 기숙사에 입소하면서 시설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입암면 신구3길 31 일원에 조성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지상 3층 18호실 규모로 최대 65명을 수용할 수 있다. 냉난방시설과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다목적실 등을 갖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영양군은 지난해 남영양농협에 운영을 맡겨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농번기 인력난 완화와 근로자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농가의 호응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인원과 운영 기간을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입소한 근로자들은 지역 농가의 신청에 따라 하루 단위로 농작업에 투입된다. 입국 당일 마약검사와 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절차를 마쳤으며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과 함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도 받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식 개최

창원시가 지난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22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마도의 날'은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에서 출정한 6월 19일을 기념해 지정된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의 장수 이씨 문중, 전북 장수군 관계자, 최윤덕 장군 대종회 종친, 박언충·박홍신 장군 밀양 박씨 문중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마도의 날' 조례는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당시 마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고창군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성황

전북 고창의 대표 여름축제인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3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지난 19일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렸다.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창 수박 품평회'가 열렸고 장어잡기, 물총싸움, 장애물 3종경기, 수박 빨리먹기 대회, 플로깅&보물찾기, 수박 카빙대회, 어린이 풀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채로운 체험·공연·판매 프로그램을 선보인 올해 축제에서는 그늘막 확충과 카드결제 시스템 강화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도 갖췄다.

/고창(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경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경산시가 경북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세외수입 운영 등 4개 분야 2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과오납 발생을 줄이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체납액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리 시책을 추진하며 지방세 징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기장군
일광보건지소 오늘 개소

부산 기장군이 일광읍에 보건지소를 새로 열고 생활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기장군은 22일 일광교육행복타운에 일광보건지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연면적 1460㎡ 규모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만성 질환관리실, 금연상담실, 모자보건실, 정신·치매상담실 등을 갖췄다.

보건지소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 예방·관리 상담, 물리치료, 금연 지원, 임산부·영유아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